



**불교 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총기 46년  
2017년 2월 1일  
음력 1월 5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07호

## 성불탑 이설 및 원정 대성사 공덕비 가지불사

한국 밀교의 역사를 새로 쓴 불교 총지중 종조 원정대성사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가 통리원에 건립되었다.

총기46년 1월 12일 총지중 통리원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와 총지중 전 스승들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성불탑 이설 및 원정 대성사 공덕비 가지불사가 봉행되었다.

성불탑 및 공덕비 제막식에는 효강 종령 예하와 인선 통리원장, 수현 중앙총의회의장, 안성 사감원장, 화령 교육원장, 우인 총무부장, 법경 서울경인 교구장, 정인화 부산경남 교구장, 지정 충청전라 교구장, 법등 총지사 주교, 김은숙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장 등이 제막을 했다.

이러 장소를 옮겨 총지사 서원당에서 계속된 가지불사에서 인선 통리원장은 정통밀교 비밀의례를 행했다.

이러 수현 중앙총의회 의장은 발원문에서 “우러러 바라옵건대, 성불탑 이설과 원정 대성사의 공덕비를 봉안하는 가지불사에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발원하나이다. 위없는 복전과 무량한 공덕으로 일체만법이 광대원만하게 하소서.”라며 밀법의 장엄한 도량에 불보살과 원정 대성사의 가지원력이



▲ 원정 대성사 공덕비 제막식

남치기를 서원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오늘, 성불탑 이설불사와 공덕비 가지 불사의 봉행으로 우리 총지중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생활불교의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며 성불탑 이설불사와 종조 원정 대성사 공덕비 가지불사의 봉행 공덕으로 종단의 화합과 발전 및 교도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봉행사에서 “공덕비는 원정대성사의 높은 법력을 중생들에게 한 없는 가지력으로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며 한국 밀교의 증흥조 이선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인선 통리원장은 종조 공덕비 불사를 시행한 해강석재 이계형 대표를 “종단의 교리 책자를 숙독하며 정통 밀교의

원리와 총지중의 교의대강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공덕비 조성에 기여하였다”며 이계형 대표의 노력에 총지중 교도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가지불사를 마친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의 공덕비에는 격변했던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고 중생구제의 대서원을 세우신 성사의 사리와 종단의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하여 함께 봉안되었다.

통리원=김종열 기자

##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 110주년 탄신대재 봉행 격동의 역사 속에 정통밀교를 세우신 대성사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0주년 탄신 대재가 총기46년 1월 24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통리원 집행부와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에 이어 스승 및 교도들의 헌화와 훈향정공이 있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 하여 우리 총지중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조국평화통일과 밀업국토의 대원 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 갑시다.”며 원정 대성사의 탄신으로 정통밀교를 이 땅에 바로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해 세우신 큰 뜻을 찬탄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오늘 종조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종조님의 크나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입니다. 종조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길은 그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은혜를 갚는 길이자 종단의 교세 발전을 이루자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크게 펼치고 실천하는 뜻으로, 용맹으로 수행정진 할 것을 총지중의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과 함께 서원합니다. 더불어 종조님의 덕화와 법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깃들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되새겼다.

김은숙 서울경인 신정회장은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큰스승으로서의 업적에 더욱 기록하여 지나니, 저희들에게 길이 길이 정진력과 자비지혜 구축케 하여주소서. 퇴진함이 없게 하소서. 용기와 건강, 희망을 갖게 하여주소서. 또한 모든 불사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일체 교도 가정에 환희와 행복이 충만하며, 일체소원이 두루 성취하게 하옵소서.”며 종조님 전에 발원하였다.

탄신대재는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하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 총기46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 총기46년 신년하례법회 교례식

총기46년 정유년 신년하례법회가 2017년 1월 12일 오후 1시 총본산 서울총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효강 종령을 비롯 인선 통리원장, 수현 중앙총의회의장과 종단 집행부를 비롯한 각 사원 주교, 기로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 했다.

우인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원정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헌화, 훈향정공, 승단하례, 교도일동 하례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효강 종령은 법어에서 “오늘은 정유년 새해 종단 교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종조 원정 대성사앞에서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종조님의 유시를 다시 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정통밀교 종단 총지중의 발전과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며 정유년 새해 다짐을 선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한해의 시작을 새해 불공 용맹 정진으로 마치신 스승님과 교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통리원장으로 큰 과오 없이 중무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교도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며 “올해도 화합하는 종단, 소통하는 종단으로 하나 되어 나갈 것입니다.”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기로스승 진원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기로스승으로 진원한

광주 법황사 수심정 전수는 효강 종령에게 가사를 받납하고, 새로이 기로스승 가사를 수여 받았다.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종조님의 가르침을 실천 하고, 수행정진과 교화에 매진하신 수심정 전수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로 진원한 수심정 전수의 노고를 치하했다.

수심정 전수는 인사말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진언 밀법으로 정진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효강 종령 예하와 선배 스승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화 현장에서 같이 웃고, 같이 노력한 교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종단과 교화를 위한 끝없는 서원과 정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염승정진으로 스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며 스승들과 교도들께 감사를 전했다.

총지사=김종량 기자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상반기 49일 불공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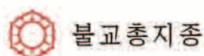
### 실천서원

인욕과 하심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유화선순과 자비지혜로써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과 오세대 제도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전생업장소멸과 즉신성불을 성취하여

가정재난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6년 2월 19일 - 4월 8일 10시  
장소 총지중 전국 사원 서원당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25길 35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 Fax 02-552-1082 www.chongji.or.kr

#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구성 등 2017년 주요 정책 발표 2017년 조계종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1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불기 2561(2017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에 추진할 주요 중점 정책을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의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물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를 구성하겠다”며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은 중점 정책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중앙·교구 균형발전, 승려복지제도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자승스님은 “자성과 해신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의 사업들을 계승하면서 종단 내 흠어져 있는 미래정책 연구기능을 집중하여 다루도록 할 것”이라며 “화쟁위원회, 대중공사, 미래세대위원회, 종단 미래정책개발사업 등 유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조계종의 2017년 주요 중무 현황을 보면 총무부는 중앙교구 균형발전-1월 중앙교구 균형발전 보고서(불교사회연구소) 등 ▲ 승려복지회는 승려 복지 -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구족계 이상) 등 ▲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총본산 성역화),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착공식 봉행 등이다.

사회부-종교평화위원회·사회노동위원회는 특권 철폐 및 차별 금지법 제정·추진 - 공청회, 세미나 개최, 특권 철폐 및 차별금지법 입법법의 추진 등이다.

포교원은 신행혁신 운동과 불자상 정립 - 신행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과 보급 및 신도 수행체계 연구개발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 포교지도 연구개발·사회복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후 자료를 중심으로 포교지도 구축 및 제공 등이다.

자성과 해신결사 추진본부는 2017년 사부 대중 공사 지역별 추진 등 ▲ 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TFT는 신도시 종교시설 건립-7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위례) 착공식 및 9월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세종) 착공식 등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 불교문화 및 성보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해의 유물 특별 공개 등이다.

교육원-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연구위원회는 근대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출판 - <경허집>, <각해일문>, <조선불교사>, <백고회통>, <근대한국불교 논설집>, <근대한국불교사신>, <조선탑과의연구>, <불자필람>, <인명입정리론회석>, <근대한국불교개혁론> 10권 영역완간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기자회견 “진각 3세대 비전마련통해 100년 준비” “지혜·자주·화합으로 희망과 온기 넘치는 종단 될 것 서원”



▲진각종 총리원장 기자회견

진각종 제30대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각 3세대 비전마련통해 100년 준비하겠다”며 “지혜·자주·화합으로 희망과 온기 넘치는 종단이 될 것을 서원한다”고 밝혔다.

회정 정사는 “종단 70년사를 돌아보면 한국불교 흐름속에서 신행법이 약간 다르다보니 진각종이라는 이미지를 심기가 힘들었다”며 “초기 선대스승님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버텼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본다. 체계화 결집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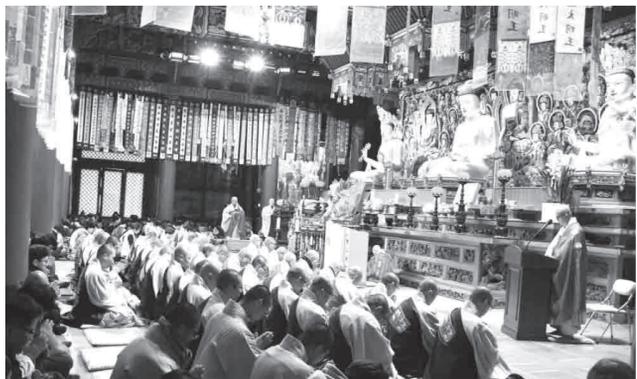
회정 정사는 “심인당 포교활성화를 위해 종단 행정을 집중하고, 수행법이나 의식, 의제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고, 총리원 제배치 및 수행과 포교역량을 지역으로 이전해 교구중심의 포교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교회는 현지인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지인을 선발해 준스승에 준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해 파견했다”며 “심

인당 환경조성을 위해 신개축에 나서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본에 직원연수를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2세포교에 관심이 없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이다. 과감한 인적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며 “교화자(스승) 양성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펼쳐 방법을 찾아갈 예정이다. 종단 스승님들의 봉양기관인 기로원을 확장해 선배 스승들이 편안하게 주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정 정사는 “새로 개관하는 국제체험관에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은 성북구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이용할 예정이며, 다른 한 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신도들을 위한 ‘해인서림’과 ‘다도실’ 등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천태종 신년하례 및 시무식 봉행 “세상에 행복 주는 종단 사명 다하자”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스님)은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4일 오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했다.

천태종 중경 도용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신년하례 및 시무식에는 총무원장 춘광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와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 대중 모두가 부처님 전에 통알 삼배를 올리며 시작된 행사에서 천태종 중

경 도용스님은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기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구나.”라며 신년 법어를 내렸다. 중경에하는 신년 법어를 통해 끊임 없는 정진과 자비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

이 많지만, 우리 종단도 넓은 의식과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이라고 강조하며 “업무현장에서 상호 화합과 협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정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장 장호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올 한해도 불퇴전의 신심과 원력으로 종단의 발전과 중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심으로 매진할 것”을 발원하며 “모든 업무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높고 넓게 드날리는 선연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불사 또한 오탁약세를 연화정도로 장엄하는 우담바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염원했다.

교무부장 경혜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은 참석 대중 모두가 서로 마주보며 한해의 건강과 정진을 기원하며 통알 배례를 하며 회향했다.

# 총지종 총리원 총기46년 시무식 투명한 중무 행정으로 종단 발전을 이룩자

총지종 총리원 시무식이 총기46년 1월 10일 총리원 부장실에서 열려 정유년 중무행정을 시작했다. 인선 총리원장, 화령 교육원장, 법경 밀교연구소장 및 총리원 총무부장등 집행부, 총무원들이 참석한

시무식은 총지종 의궤에 따라 불공으로 시작하였다.

인선 총리원장은 “지난 한 해 큰 과업 없이 중무행정을 집행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 소임자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가능

했습니다. 올 한해도 투명한 중무행정으로 종단의 신뢰를 쌓고, 총지종 교화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며 인사말을 하였다.

총리원은 지난 한 해 사업들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정유년에 새로이 시작하는 종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 중무 행정 인력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총지종 중무행정은 매년 새해불공을 마친 후 시무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총리원-권혁준

# 불교총지종 인사발령

소속	불명	발령 사항	발령일자	소속	불명	발령 사항	발령일자
선립사	보원	선립사 근무를 면함.	총기45.12.26.	총지사	인덕심	총지사 근무를 면함. 밀인사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선립사	심지장	선립사 근무를 면함.	총기45.12.26.	밀인사	원당	밀인사 주교 근무를 면함. 총지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수계사	안주화	수계사 근무를 면함.	총기45.12.26.	밀인사	묘심해	밀인사 근무를 면함. 총지사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수계사	현일	수계사 파견근무를 면함. 수계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5.12.26.	삼밀사	서령	삼밀사 주교 근무를 면함. 법행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총지사	혜음	총지사 근무를 면함. 선립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5.12.26.	삼밀사	해원정	삼밀사 근무를 면함. 법행사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법행사	지광	법행사 근무를 면함.	총기46.1.13.	총지사	남해	총지사 근무를 면함. 삼밀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6.1.13.
법행사	수심경	기로스승에 명함. 법행사 주교근무를 면함.	총기46.1.1. 총기46.1.13.				
총지사	법등	총지사 주교 근무를 면함. 밀인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6.1.13.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12월21일 ~ 1월20일까지

기로스승	원 봉	12/21	10,000
	원 봉	1/17	10,000
	지선행	1/17	10,000
	지선행	12/21	10,000
개천사	황귀석	12/30	10,000
	전세형	1/5	30,000
덕화사	이상욱	1/16	10,000
밀인사	정정희	12/29	5,000
	법 등	1/10	30,000
	이기상	1/9	10,000
	안옥진	1/9	10,000
	이성수	1/9	10,000
	박주연	1/9	10,000
	이수연	1/9	10,000
만보사	정덕순	12/28	10,000
	박성일	1/2	30,000

벽룡사	양정현	1/17	10,000
	양지현	1/17	10,000
	권형민	1/17	10,000
법행사	박미경	1/18	10,000
실지사	조성우	1/3	10,000
	박병성	1/11	20,000
실보사	이순욱	12/22	10,000
수인사	정순득	1/16	10,000
	무명씨	12/29	10,000
선립사	심지장	1/17	10,000
	황귀석	12/30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1/2	10,000
	김지영	12/24	10,000
	김용미	12/26	10,000
	이준동	12/26	10,000

구나영	1/18	10,000	
하재희	12/26	50,000	
운천사	무명씨	1/11	20,000
정각사	변순개	1/13	10,000
	탁상달	1/12	20,000
지인사	승효계	12/21	10,000
	승효계	1/17	10,000
	허성동	1/18	30,000
	허성동	12/29	3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26	30,000
총지사	신용도	1/17	10,000
	박정희	1/17	10,000
	백지순	1/11	20,000
	손경욱	1/16	10,000
총리원	김평석	1/18	10,000

화음사	무명씨	1/2	10,000
	하순욱	1/9	10,000
혜정사	최영례	1/20	10,000
흥국사	지정	12/21	20,000
	지정	1/17	20,000
사원명무기명			
	김갑선	1/19	10,000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충기46년 새해불공 원만 회향

## 일체 중생의 성불과 국가 안위를 서원한 불공

충기46년 새해불공이 충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당에서 1월 2일부터 9일 새벽 4시까지의 일정을 원만히 회향했다.

새해불공은 한해의 살림불공으로 새해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교도들이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성, 개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용맹 정진하는 불사다. 인선 통리원장은 관성사 새해불공 회향

법회에서 설법을 통해 "새해불공은 7일간의 정진을 통해 정유년 한해의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서원하는 불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불국토가 건설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두루 펼쳐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7일간의 용맹정진을 무사히 마치신 교도여러분들의 소원도 모두 성

취하시는 정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정유년 새해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교도가정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충지종의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 충지종 인선 통리원장 정유년 신년계획 발표

## BTN 기획보도 신년 대담 인터뷰에서



불교충지종 인선통리원장이 불교TV 기획보도 신년 대담 인터뷰에서 충기46년 신년 중무행정 계획을 밝혔다. 불교TV 하경목 보도부장과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 취임 1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무행정 계획의 성과를 평가해 주신다면?  
→ 네. 통영 단향사 현공불사와 기도도량인 괴산의 중원사 현공불사를 한 것이 올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지사에 종조 원정 대성사 공덕비를 조성중이며 충기46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거점 기도도량 정각사 부지매입이 완료됨으로써 2017년 불사 추진을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

◆ 스승님들의 밀교관법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의 안거와는 다르긴 하지만, 나

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원사의 집중수련 추진 배경과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 저희들은 삼밀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밀은 신밀, 구밀, 의밀입니다. 신밀, 구밀수행은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되고 있지만, 대중이 같이 하다 보니 의밀수행에 관련한 관법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체계화 하고 수행체계를 재정비하며, 밀교의 가장 기본이며 최고의 관법 아자관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 충지종은 통리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 저희는 모든 사원이 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포교에 맞는 시설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량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관성사, 중랑구 정심사, 성남 법천사 등 도량의 변화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산에 있는 동해중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비전

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동해중 안에 동해사 서원당을 둔 이유가 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접하게 하고, 불교의 인연을 맺어주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성이 형성된다면 불교정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사는 청소년포교와 청소년 인성교육에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단 수장으로 각오와 중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불통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제일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취임하면서 우리 교도들에게 승단과 교도간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지종은 생활불교를 표방합니다.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도들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리=이선희 기자

# 불교충지종 종무원 4대 보험 전격 시행

충지종 통리원은 충기46년 1월부터 종무원 4대 보험을 전격 시행한다.

18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취임과 더불어 밝힌 종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외부 기관과 노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시행을 결정했다.

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국가 4대 보험은 불교계에서도 일부 종단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4대 보험 시행으로 종무원들의 고용 안

정과 퇴직 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근무 사기 진작과 종무원 복지가 한결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충단은 지난해 종무원 숙소 신축 공사를 시행하여 오는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 부산 법성사 전병원 보살 손자

## 강동하 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합격



▲ 서울대에 합격한 강동하 군 가족 (왼쪽부터 형 강동우, 강동하, 어머니 이현호 아버지 강승구)

부산 법성사(주교 법선에서 40년을 넘게 진인 수행 정진한 전병원 보살의 손자 강동하(울산 현대 청운고 3) 군이 2017년도 대학 수능능력평가시험에서 우수한 성

적을 얻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특히 높은 경쟁률과 전국 최상위권 0.01%의 우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이다.

아버지 강승구 각자와 어머니 이현호 보살의 차남인 강동하 군은 "할머니와 부모님의 지극한 기도와 옴니반메움 불공정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극복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합격의 영광을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돌렸다.

전병원 보살은 손자의 합격 소식을 "모

든 것이 불공 공덕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충지종의 진인 염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손자의 영광을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돌렸다.

전병원 보살은 부산 법성사에서 정통밀교 충지종의 가르침에 따라 40여년을 수행했다.

또한 법성사는 이번 수능 기도에 동참한 전원이 합격의 가지 공덕을 받았다.

# 서울·경인 마니합창단 단장 이·취임

## 신임 단장에 최영아, 총무에 김옥임 취임



충지종 서울, 경인 마니합창단 신임 단장에 충지사 최영아 보살과 총무에 밀인사 김옥임 보살이 임명되었다. 마니합창단은 1월 17일 통리원 2층 합창단 연습실에서 전임 손경옥 단장과 총무 최혜선 보살의 이임식과 신임 최영아 단장과 총무 김옥임보살의 취임식을 가졌다.

전임 손경옥 단장은 "임기 동안 저를 믿고 따라주신 단원들과 지도해주신 김양희 단장님과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신임 단장님과 총무님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더욱 발전된 합창단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짧은 소감을 말했다.

신임 최영아 단장은 "전임 손경옥 단장님과 최혜선 총무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취임의 인사를 전했다.

# 2017년에 바뀌는 10가지 제도

<p><b>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b></p> <p>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제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주소, 연락처 등도 모두 수집이 제한됩니다.</p>	<p><b>2. 초등학교 시험 폐지</b></p> <p>충북과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시험을 폐지하고 수시평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p> <p>결과 중심의 평가로 아이들을 경쟁시키기 보다 다양한 경험을 길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합니다.</p>	<p><b>3. 운전면허 시험 강화</b></p> <p>2017년은 아니지만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가속코스, 직각주차(T자 코스)가 추가되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p>	<p><b>4. LPG택시, 렌트카, 중고 구입 가능</b></p> <p>기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쓴 차량을 양도받아야 했지만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택시, 렌트카 등 5년 이상 쓴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10% 소득공제</p>	<p><b>5. 공무원시험 개정(국가직)</b></p> <p>국가직 7급 영어시험이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됩니다. 국가직 5급 공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국가직 6급 이하 시험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p>
<p><b>6. 사형성 규제 정책 개정</b></p> <p>현 정부의 범죄수익환수 포상제도가 간소화됩니다.</p> <p>대포통장을 우선 압류 조치 후 대포통장의 입금액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신고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형성 규제와 세수확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p>	<p><b>7. 최저시급 인상</b></p> <p>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 결정 됐습니다.</p>	<p><b>8. 2층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b></p> <p>2017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p> <p>작년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p>	<p><b>9. 세법, 대출법 개정</b></p> <p>소득세 최고세율 5억 초과시 40% 인상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 80% → 60% 한도 축소</p>	<p><b>10. 입산부 지원비 개정</b></p> <p>입산부는 누구나 1인당 진료비 50만원 지원</p> <p>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 → 150만원 인상</p> <p>다태아 입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70만원 → 90만원 인상</p>



# 불교충지종

## 종무원 모집 공고

불교충지종에서 **충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 사무직  
모집인원 : 0명  
자격요건 : 학력, 경력, 성별무관  
필수사항 : 1종 보통운전면허  
우대사항 : 불교관련 전공자

###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급여 : 1,800-2,000만원  
인근전철 :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1번출구

### ◎ 접수문의

불교충지종 통리원 (02) 552-1080

지상 설법

# 내 앞의 모든 것은 내 것 아닌 것이 없다.

##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돌아옵니다.



정각사 주교 법상인

오늘은 새해불공 회향일이자 첫 번째 자성일 법회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보살님들이 열심히 새해불공 정진을 하셨고, 오늘은 마지막 대정진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정진하시어 불공 공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는 모두가 여행을 하는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행자인가 하면은 여행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긴 여행을 가든 짧은 여행을 하든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갖추고 떠나야겠죠. 준비를 잘해 우리에게 맞는 곳에 가는 것이 편안한 여행이겠죠.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가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잘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행을 위해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해를 하고, 감사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닦지 않은 사람은 투정도 하고 남 탓도 하며, 나 아니면 안된다고 성을 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 할 줄 모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먼 여행을 갈지 짧은 여행을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가는 결국 자기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자기 대신 그 여행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여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또 다른 여행을 하러 떠나지 않겠습니까?

고도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진리라 합니다. 원래 그래왔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에게도 이치가 맞고 보살님한테도 이치가 맞으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통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태어나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는 진리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 빠지기도 하고 나쁜 것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 공, 인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면, 우리는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려면 온 대지에 햇빛과 거름, 흙 등등의 모든

자연의 힘이 도와주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꽃 한 송이의 인연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 우주 전체의 인연이 모여야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도 작풍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 삶이 내가 만든 작풍이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내 몫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우리를 바꿔 줄 수 없고, 조상불공 많이 한다고 해서 조상이 바뀌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과 스승은 길의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하려면 온전히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돌아옵니다. 어느 집에 똑똑한 시어머니가 살림을 잘 꾸리고 있는데, 바보 같은 며느리가 저 어른 돌아가시면 어찌 살겠노 하겠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며느리가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 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보살님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돌보고 살았습니다. 보살님이 다리가 아파 절뚝이면서 일을 하고 있어도, 딸은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만 보 더랍니다. 밥도 차려줄때까지 안 먹더라는 겁니다. 속에 화가 올라와도 굶는 자식 보기 싫어 진심을 내면서 밥을 차렸답니다. 각자님은 보살님이 아파 누워 있으면, 일어나라 하고, 병원 갈려면 거긴 뭐 하러 가냐고, 가만히 있으면 나올 거라고, 앉아 잔소리만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홉 식구 수발을 하다보면 밤 열두시가 지나야 집안일이 끝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게 없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에게 빛 받으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이를 회피하고 거부하면 나에게 업 하나만 더 붙는다는 생각이 들 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빛 갖는다고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날도 있겠지, 마음 먹으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그렇듯이 내 앞에 오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소화를 잘하는 것이 바로 수행 잘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만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업을 소멸하는 것은 손님 왔는데 대접 잘해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업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이미 지은 업은 어쩔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업을 전승을 잘 해야 합니다. 들어오면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시켜서 내보내야 합니다. 올 때마다 원망하고 진심을 내고 욕을 해대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아, 내 허물 없애려고 오는구나, 내 업을 소멸하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상대의 허물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은 언젠가는 갑니다. 잘 전승하면 업이 소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몸통은 부처님이고, 가지는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스승님이며, 나무의 뿌리는 우리 보살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보살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를 못 내리면 몸통과 가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몸통인 부처님을 잘 받들고 가지인 스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불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의 모습이 되고, 부처의 마음으로 생활하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은 내마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으로 지키는 청정한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만 해탈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앞의 모든 것은 내 것 아닌 것이 없으니 실천하는 보살로 살아갑시다.



## 소녀상과 정발 장군



지난달 부산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다. 전 세계에서 55번째로 세워진 소녀상이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설치했다. 일본은 즉각 항의를 표하고, 주한 대사를 본국으로 조치하는 외교적 강수를 두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지금의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이 있던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교역을 했던 왜관이 있던 지역이다. 부산역과 부두가 가까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다. 초량 소녀상에서 부산역 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정발 장군 동상이 우뚝 서있다. 흑의 장군이라 불렀던 정발 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북방의 주요 요직을 거친 장수로 임란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부

산진 첨절제사로 부임한다. 1592년 4월 14일 새벽, 고신시 유키나가 이끄는 일본군 제1군이 부산진성으로 밀려들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산진성 수비군과 격돌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정발 장군과 병사, 백성들은 분전했으나 수적 열세와 조총이라는 신무기의 위력을 이겨내지 못해 4시간 여 만에 전투는 패배로 끝나고 정발 장군은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 전사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은 1977년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다. 그로부터 39년 뒤 일본의 범죄에 희생된 위안부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이 이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과오를 묻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은 유전자속에 간직되어 후세로 계속 전

해진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 살아 숨 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해 질 것이다. 소녀상이여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든든히 지켜 줄 장군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편집장=김종열

관세음보살 예찬문

불교총지중 법장원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운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보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불교의 선정 54 생활 중의 정념 10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령

#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3

## ‘정념 수행은 참나를 찾아가는 행복 여행’

### 앉아서 하는 정념 훈련

우리의 일상은 크게 나누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이다. 현대인들은 걸어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우리는 앉아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늘 상념에 잠겨 온몸을 긴장시킨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는 숨을 편안히 쉬면서 자기가 앉은 모양을 스스로 느껴 본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어떤 곳에 앉아있어도 불편함을 느낀다. 이럴 때는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숨을 두세 번 쉬어 본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몸 전체를 죽 내리 훑어가는 느낌으로 자세를 조정하고 특정 부위를 긴장시키고 있거나 않은지 살펴본다.

그리고 특별히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지면 상념으로 그 부분을 편안히 해 본다. 운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에는 가끔씩 크게 숨을 내쉬어 본다. 다만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본다.

활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끔씩 호흡을 바라보며 자세를 바로 하게 되면 한결 긴장이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 몸이 편안해 질뿐만 아니라 활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있게 되므로 바르게 앉아서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심신의 긴장완화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 잠시 동안의 정념은 심신의 긴장 완화와 함께 일상에서의 실수를 줄여주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심신이 편안해지면 인간관계에서도 살벌함이 줄어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삼매경에 들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와 호흡의 관찰을 통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념의 목적이다. 앉아있는 시간에 정념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수행하며 사는 것과 같다. 모든 일을 쫓겨다니고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매 순간마다 통찰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음을 살펴 지혜를 기르고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며 수행자의 본분이다.

### 잘 걷는 것도 심신을 편안하게

앉아있는 시간에 정념을 유지하여 심신의 스트레스를 이완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걷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수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 화가 나면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퍼붓거나 자신을 학대하기도 한다.

좀 온건한 사람들은 수다를 떨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할 것이다. 가끔은 도박이나 섹스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근본적으로는 심신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더 큰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비하여 걷기를 하면서 심신을 이완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걷는 것은 규칙적인 율동이며 그러한 율동은 자신도 모르게 심신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걷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온 몸의 근육이 긴장을 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발걸음과 함께 리듬감 있는 호흡을 곁들여 걷기에 몰두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앉아서 생활하며 잡다한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는 걷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앉아있을 때는 잡다한 생각에 휘둘리어 주변의 감각세계를 그다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걷는 동안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이 더 잘 인식되고 주위의 소리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감각적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감각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걷게 되면 마음이 한결 집중되고 차분해진다.

앉아서만 정념 수행을 하려면 무릎감이 들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거나 근육의 긴장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비하면 걷기는 신체를 활성화하며 보고 듣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집중이 더 잘된다. 사람들이 흔히 산책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결심을 굳히거나 화가 풀리게 되는 것도 걷기명상의 효과 중의 하나이다.

걷기를 하면서 정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

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발걸음과 호흡을 일치시켜 본다. 잡생각에 빠져들 때마다 자신의 호흡이 어떻게 빨라지는가를 관찰하면서 곧 원래의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의식을 집중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걸음을 세면서 걷는 것도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세는 것도 무작정 세는 것이 아니라 1에서 5까지, 다음은 1에서 6까지, 1에서 7까지, 1에서 8까지 하는 식으로 세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8이상이 되면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걸음과 호흡을 나름대로 일치시켜 본다. ‘한 걸음에 호흡 한 번’ 하는 식으로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어떻게 걷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점점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점점 여유 있는 발걸음이 되면서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모도 한결 적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걸을 수 있다.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산책과 걷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언하신다. “걸어 다니는 데 다섯 가지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는 점점 많이 걸을 수 있고, 둘은 힘이 생겨 건강해지며, 셋은 아침 일찍 일어나며 졸음이 없어지고, 넷은 소화가 잘되며, 다섯은 마음이 안정되고 의지가 굳어진다.” 걸으면서 호흡관찰과 함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각세계에 집중하면서 정념을 유지한다면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으므로 걷기를 통한 이러한 수행방법은 특히 많이 걸지 않는 현대인에게서 적극 추천할만한 불교의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숲길에서의 산책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대로 정념을 유지하고,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니는 대로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스트레스에 쪼들 필요가 없이 항상 심신을 가만하게 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심신이 가만하고 정성이 맑게 깨어있으면 삼독에 쪼들 일도 없고 불행운을 조래할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일에 직면해서도 정념을 유지하면 정확한 사태판단과 함께 항상 지혜롭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바세계를 헤쳐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저 앉아서 돌부처처럼 자신만의 법에 잠겨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자신을 놓치지 말고 정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무무르는 것마다 주인이 되고 지금이 지리가 바로 진리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유키구라모토 화이트데이 콘서트

봄날의 꿈

2017.3.17 FRI 8PM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BALLET GALA

THE MASTERPIECE

3.22 wed / 5.24 wed / 7.28 fri 8pm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Salon de Mapo

살롱드마포

봄 마중

2 / 22 WED | AM 11:00

미포아트센터 스튜디오 3



# 교회의 중심에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교화 도량으로

##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정각사는 총지종 부산·경남 교구의 중심사찰이자, 정통밀교 총지종의 불꽃같은 교회의 중심이다. 초대 주교 정각원 스승님의 법력으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수행을 이어온 정각사는 새로운 지역불교문화중심센터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스포츠댄스, 사군자, 경전강의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

### 총지종 탄생과 함께한 정각사의 역사



정각사는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의 중심사찰이다. 총지종 전국 사원 중 최대 규모다. 정각사의 역사가 바로 총지종의 역사와 같이 한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 중흥의 사명을 받으시고 입교 개종한 1972년 12월 24일 상봉동 선교부에서 처음 종단을 여시고, 사후 뒤 지금의 사원자리에 있던 정각원 초대 주교의 자택에 부산 선교부를 창설하신다. 이 작은 출발이 오늘의 부산 최대의 진인 밀법도량 정각사의 발원이다.

총기4년(1975년) 총지서원당으로 개칭하였고, 총기5년(1976년) 사원명을 정각사로 바꾸었고, 총기 6년(1977년) 현대식 건물에 밀법도량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후 비약적인 교화 발전을 이룬 정각사는 밀려오는 교도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각 지역별로 사원을 개설하는 역사를 이룬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각사는 총기23년(1994년)에 신축에 들어가 총기24년(1995년) 지상 2층 지하4층의 부속 건물을 먼저 준공하고, 총기26년(1997년) 4월 17일 본당 헌공 불사를 봉행하여 지금의 사원 시설을 완성했다.

2015년 정각사 주변 재건축이 끝나 부산 중산층의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한 동남권 최고의 정통밀교도량으로 변모했다.

### 정각사 건립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정각원 대전수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을 함께하신 창종 스승이다. 창종 사후 뒤 부산시 명륜동 자택에서 부산선교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교화에 뛰어든다.

1929년 경남 밀양군 무안면에서 출생한 정각원 대전수의 속명은 석혜선이다. 어려서부터 진인 밀교를 받아들여 수행 정진하다, 1972년 원정 대성사로부터 수계를 받고 승계에 들었다.

명륜동 선교부는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각원 대전수의 위대한 법력은 불교의 고장이라는 부산의 많은 불자들을 진인 밀교로 이끌었다. “남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의 그림자”라 설법하면서 은화한 인품과 가슴속 깊이 와닿는 사자후로 많은 교도들을 총지 범문에 들게 했다.

지금도 정각사 노보살님들은 정각원 대전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어둠에 갇힌 미혹한 중생으로 총지종의 죽신성불의 대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회고했다.

1977년 정각사 창건 초대주교에 임명되고, 1978년 대전수에 풀수되었다. 1980년 총지종 중앙총의회 부의장과 통리원 교정부장을 역임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창립을 주도하여 1982년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1983년 12월 28일 정각사에서 입적했다.

정각원 대전수의 법력은 교화뿐만 아니라 스승 양성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대전수의 법력으로 출가하여 승계에 든 스승들이 지금은 총지종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었다.

###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



총지종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단장 이상록, 총무 최영혜, 최정숙)은 정각사와 함께 성장한 수준급의 합창단이다. 합창단은 박윤규 선생의 지휘와 김옥희 선생의 반주로 천상의 화음을 낸다. 특히 부산 시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화음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만다라합창단은 서로간의 화합과 우애가 남다른 합창단입니다. 박윤규 선생님의 지도로 올해는 외부 초청 공연과 부산·경남교구의 각종 불사에 더 적극 참여해 화음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려 합니다”며 합창단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에서는 공연을 가진 반납하고 행사 의전 및 준비에 전 단원이 동참하여 종단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천상의 가람빈가의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하는 만다라의 활동을 정유년에도 기대한다.



### 정각사 신정회 지회

총지종 정각사 신정회(회장 지종영, 부회장 김점남, 이말남, 윤묘연, 총무 오해자, 진숙자)는 가족이다. 지회는 모두가 형제이자 자매이다. 서로 집안에 대소사까지 훤히 알고 있다. 이는 모두가 지종영회장과 임원진의 원력이다.

신정회는 가정불공 때나 경조사 때 총출동한다. 내가족의 일처럼 모두가 동참한다. 각종 불사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각사 신정회 회장 지종영 보살은 “법상인 전수님이 주교로 부임하신 이후 지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법상인 전수님과 상의하여 같이 불공하고 원력을 모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만사형통하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일년에 한 두 번은 교도들의 단합을 위한 관불을 떠나기도 합니다.”며 신정회 활동을 소상히 전했다.

정각사 신정회는 전국의 어느 사원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각자들의 신행단체 ‘단월회’

단월회(회장 강경중, 총무 김진화)는 정각사 각자님들의 신행봉사단체로 각자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월1회 정기 모임과 자정일 법회 후 휴게실에서 차담을 나누면서 서로 경쾌하고 신행담을 나눈다.

단월회 회장 강경중 각자는 “단월회는 각자님들이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밀교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각사의 교화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각종 불사 및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초과일 연동제도에 자원봉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며 단월회의 근황을 소개했다. 단월회는 봄. 가을 정기 산사순례 행사, 불우이웃돕기, 정각사 바라밀공부방 지원 등 신행생활을 해오고 있다.

### 지역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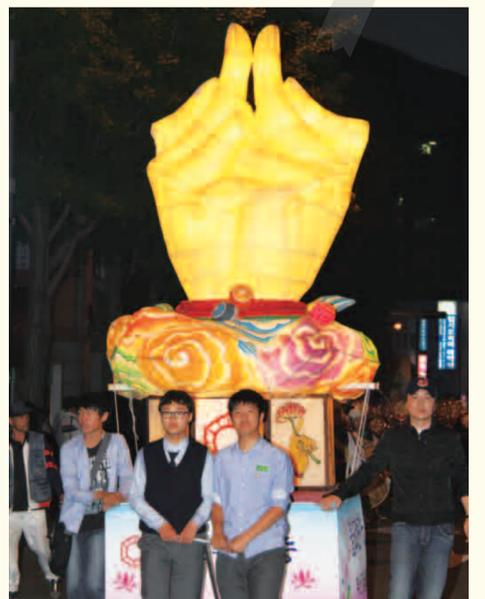
▲ 정각사 본존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6개 산하 기관 중 부산에서 운영되는 복지기관인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부강)은 총지종 청소년 포교와 지역 복지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다.

가정행편이 어려워 방과후 교육 사각지역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총지종은 자비와 보시의 부처님 정신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과감히 바라밀 공부방을 개설했다.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청소년기를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성장한 것에 감사한다고 한다.

김부강 센터장은 “그동안 종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각사 스승님, 교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이제는 지역 중견 복지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이겨낸 학생들이 다시 찾아올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며 공부방 운영의 현황을 전했다. 정각사는 지속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 할 계획이다.



▲ 봉축 행사에 동참한 학생들

정각사 박두상 보살 신행 체험

집안의 풍파를 막아준 불공의 힘

한번은 동네에서 근교로 관광을 가자고 해서 월초불공을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동참 명패가 보이지 않았...

전부 해집고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아크릴 재질의 명패들을 만지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지만 전수님은 손을 저으며 괜찮으니 그냥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의 재를 올린 다음에 관광까지 마쳤...



로 나가지고 우리 집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집이 21평 정도 되었는데, 그 때 계산으로 따져보면 600만 원 정도 밖에...

600만 원이면 어디 다른데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당장 다음 날이 막막했을 텐데 딱 우리 집만 살려주는 모양으로 길을...

지금도 가만 생각해보면,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총지종을 만난 후로 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행한 가택 도량 청정과...

아무래도 아들 녀석도 제 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 걸 바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각사 황윤희 보살 신행 체험

진언 염송의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1976년도 둘째 아이를 낳은 그 해, 정각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나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 몸이 영 좋지 못했...

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그때의 기분이 아주 생생하다. 떡이 담겨 있던 접시의 감촉이나 모양, 또 집으로 돌아오던 길의 풍경 따위...

아마 스승님은 날 그만큼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확신이 강하게 든다.



손으로 떠 넣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절로 떠졌다는 표현이 더 옳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업고, 안고 서원당으로 뛰어갔다. 그...

그 때의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을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인연이 아닌 것이 없었다. 처사보살로 계셨던 고모도, 유달리 날 챙겨주시던 정각원 스...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역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종 / 인쇄 : 동림기획

< 서원 사항 >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혜 총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2)

# 블랙리스트와 등류법신(等流法身)

◆ 요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영어로 blacklist라 한다. 경계를 요하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화이트리스트도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누구에게나 식별되는 실체들을 모아놓은 목록이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나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화이트리스트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개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대상자 다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고통을 준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대중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차원에서 이권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공통점은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점이다. 시기와 반복, 대립과 갈등에 의해서 작성되며, 불이익과 보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또다른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열린 마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체대비심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 불교에서는 열린 마음, 열린 사고와 관련된 수행교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굳이 확장하여 말한다면,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이 있고, 팔정도(八正道), 십선업(十善業)의 실천교설이 있다. 부처님의 교설이 열린 마음, 열린 사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다. 그 가운데 사무량심(四無量心)의 가르침은 열린 마음, 열린 사고의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사무량심은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의 커다란 마음이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의 무량심(無量心)이다.

우리 사회의 블랙리스트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부당(不當)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적사회,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악행이다. 블랙리스트는 친소에 따라 달리 적용하겠다는 뜻과 반대세력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저의를 담고 있어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밭디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밭기는 해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래도 '배판디'는 의미는 다행히 들어 있다. 여기에는 선의가 아니라 억지로 배판디는 의미가 들어 있지만 배판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마음은 그래도 가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대신에 떡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선심(善心)을 가졌더라면 우리 사회는 좀더 밝았으리라. 미운 상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밭디만 떡 하나를 더 주는 마음을 갖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비비심을 더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억지춘향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떡 하나를 더 주는 마음은 우리 사회를 좀더 밝게 해주는 한 줄기의 빛이라 할 수 있다. 미약한 빛이지만 절실하다. 미운 상대를 부처님이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 미운 상대를 부처님으로 바라 보는 마음을 밀교에서 비유한다면, 등류법신(等流法身)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등류법신은 밀교의 사중법신 가운데 한 분을 가리키는데, 부처의 몸이 변화하여 인천(天人)이나 축생(畜生) 등의 모습으로 현신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중생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현신하여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주는 법신이지만, 이를 외연으로 확장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요, 미운 상대가 곧 나의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부처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현신하여 법을 설한다고 볼 때, 그 법은 당체설법(當體設法)·당체법문(當體法門)이며, 옆에 있는 상대는 곧 내게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이요, 법을 주는 당체법신(當體法身)이므로 그 상대는 곧 나의 등류법신(等流法身)이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나의 부처로 보는 것이 등류법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이며, 당체법문으로써 법을 전해주는 모든 중생을 등류법신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법신불사상이다.

미물마저도 등류법신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등류법신으로 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없고, 내 마음의 번뇌와 고통은 저절로 소멸된다.

등류법신은 상대의 허물을 곧 나의 허물로 보는 마음, 자식의 허물을 부모 자신의 허물처럼 바로 이해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류법신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 결함과 장애가 없는 마음이므로, 다른 말로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몸이라고 여기는 대자비심의 마음이 곧 상대를 부처로 보는 등류법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 밀교의 주불(主佛)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며 이를 법신불(法身佛)이라 부른다. 법신은 우주 삼라만상과 일체의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법신을 이법신(理法身)과 지법신(智法身)으로 분류하고, 또 네 종류의 법신으로 나누

어 설명하기도 한다. 자성법신(自性法身)·수용법신(受用法身)·변화법신(變化法身)·등류법신(等流法身)이 네 종류의 법신이다.

자성법신(自性法身)은 온갖 법의 본체(本體)로서 삼세(三世)에 상주하는 불신(佛身)이며, 이를 이(理)와 지(智)의 두 방면으로 보아서 이법신(理法身)·지법신(智法身)으로 나눈다. 이법신(理法身)은 6대(六代) 중의 앞에 오대(五代)를 내용으로 하는 불(佛)로서 태장계(胎藏界) 만다라(曼荼羅)의 대일여래(大日如來)이고, 지법신(智法身)은 제육(第六)의 식대(識大)를 내용으로 하는 불(佛)로서 금강계(金剛界)의 대일여래(大日如來)를 가리킨다.

수용법신(受用法身)은 온갖 법의 자성인 절대계(絕對界)로부터 상대계(相對界)에 나타난 4불(四佛)의 세계로 여기에는 2종이 있다. 첫째 자수용법신(自受用法身)은 스스로 증득한 경지를 스스로 맛보는 불신(佛身)이고, 둘째 타수용법신(他受用法身)은 십지(十地) 보살(菩薩)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불신(佛身)이다.

변화법신(變化法身)은 십지(十地) 이전의 보살(菩薩)과 이승(二乘)과 법부를 위하여 설법하는 법신(法身)이다. 석존(釋尊)과 같이 가류(類類)를 따르고, 국토에 나타나는 불(佛)을 가리킨다. 다음의 등류법신과 유사한 법신이다.

등류법신(等流法身)은 불계(佛界)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 응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 설법하는 불신(佛身)이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내 옆의 사람, 미운 상대마저도 부처님으로 여기는 것이 추가된다.

미운과 증오, 시기와 질투, 조복(調伏)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마음,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원천(怨讎)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블랙리스트가 없는 세상, 등류법신의 법신불 세상, 불국정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블랙리스트는 반목과 대립에서 발생, 동체대비심의 열린 마음과 사고가 필요

블랙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요주의 인물명부'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동관계의 은어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미조직사업소를 조직할 때 조합의 전임 조직책을 파견한다.

이때 조직책은 대상 사업소에 취직하여 내부에서 조직하거나 대상 사업소 종업원과 접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의 조합을 조직하는 데 일을 돕는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활동과 개입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조합 조직책의 인물명부 작성을 홍신소 등에 의뢰하고 그 명부를 이용하여 조직화에 대응하였는데, 이 인물명부가 블랙리스트이다. 반대로 노동조합도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두드러진 기업을 밝혀내 요주의 기업의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같은 기업명부도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블랙(black)은 검은 색을 뜻하며, 대체로 어둡음·암흑·불명예·불길함 등으로 쓰인다. 나쁜 의미를 주로 담고 있다. 여기에 리스트(list)라는 단어가 붙어 '요주의 인물'을 뜻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국 경찰이 용의자의 리스트로 썼던 말이었는데, 이후 전과자나 특정인물, 수상한 사람, 요주의 고객 등을 나타내는 말로 확장되었다.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경우는 성범죄자나 상습적인 범죄 행위자나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되고, 비공식적인 경우는 공개를 지극히 꺼려서 비밀스럽게 작성된다.

또 블랙리스트는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적으로 감시와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작성한 경우는

둘 다 '대상을 관리하고 감시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단지 이유와 목적,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대중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고분고분하지 않는 노동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블랙리스트는 다른 의도가 있어 문제가 된다. 바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작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블랙리스트가 공공성을 띤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로지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쁜 의도로 작성되는 경우라면 문제는 다르다. 보복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산 삭감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어 한직으로 보내거나 사직과 사퇴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도 많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가 선의(善意)와 공의(公義)로 작성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악의적으로 작성된다면 문제가 심각한다.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는 바른 사고방식과 선의(善意)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높은 시민의식,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열린 마음, 열린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상대를 대립적으로 보는 데서만 들어지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야 할 대상이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의

# 제 47회 동해중학교 졸업식

일시 | 2017년 2월 13일 (월) 10시 30분  
장소 | 동해중학교 해오름 대강당



희망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더욱 신장되고 동해중학교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제 47회 졸업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졸업생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중학교 교장

# 고산 스님 출가 70주년 기념 '돈황본 육조단경 강의' 출간

## 조계종 쌍계사·고산문화재단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위원을 지낸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이 출가 70주년을 기념해 '돈황본 육조단경 강의' 출간했다. 이 책은 고산 스님이 대승사본, 홍성사본, 덕이본, 종보본 등과 비교·연구해 강의한 내용이다.

쌍계사(주지 원정 스님)와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1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산 큰스님의 출가 7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전법과 생사해탈을 위한 경절문, 돈오법의 수행을 진각하기 위해 '쌍계총림신서'를 펴낼 계획"이라면서 "쌍계총림신서는 쌍계총림의 방장이시고 선·교·육을 섭렵하신 고산 큰스님께서 1948년 출가이후 제방의 강원에서 논강한 경전 및 율장, 선어록 강

의와 법회에서 하신 법문을 집대성 해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돈황본 육조단경'은 고산 스님이 대승사본, 홍성사본, 덕이본, 종보본 등과 비교·연구해 강의한 내용이다. 특히 이 책은 고산 스님이 20여 년 전 스님들 공부모임인 '명심회' 스님들에게 했던 20회 분량의 강의를 엮은 것이다.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은 "쌍계사에는 육조해능 대사의 정상을 모신 정상암이 있다. 조계종 수행가풍을 선양하기 위해 '육조단경'으로 쌍계총림신서 발간을 시작했다"며 "계을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범망경'을 오는 음력 3월 쌍계사 보살계 법회에 맞춰 발간하겠다.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풀이한 '금강경요가해' 등 경전과 어록을 차례로 펴내겠다. 의식 범패 등 의례집, 다도 관련 서적 등도 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천태종 분당 대광사, 금니법화경 사경 전시회 개막

## 전시 후 미륵보전 미륵부처님 복장 봉안

천태종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1월 14일 오전 11시 지관전에서 이순자 사경작가의 금니법화경 사경작품과 <법화경> 변상도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순자 작가를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사경 전시회에는 이순자 작가가 1,000일 동안 순도 99.9%의 금으로 쓴 <묘법연화경> 7권과 <법화경> 28품의 내용을 각각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 등 총 50여점이 전시됐다. 개막식은 개막 기념 테이프 절단식에

이어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하신 최상승법인 <법화경>을 이순자 작가가 정성을 들여 금니로 한 자 한 자 쓴 금니법화경을 주지 월도 스님의 원력으로 미륵보전 미륵부처님 복장 봉안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장에 봉안하기 전에 금니법화경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사를 적극 지원해주신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대광사를 방문해 미륵보전을 둘러본 뒤

금니법화경 봉안 불사 동참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이순자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월도 스님은 또 "금니법화경을 미륵부처님 복장에 봉안하는 불사는 한 사람의 정성이 아닌 대중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모아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며 "세계생생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불사가 될 것이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미륵보전 미륵부처님 복장에 봉안될 예정이다. 대광사는 3월말 경 미륵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 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봉행

## 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 등 집행부 동참



스님, 부회장 태고종 도산 스님, 천태종 춘광 스님, 진각종 회성 정사, 상임이사 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교정부장 범일정사 등 주요종단 스님들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며 지난 아픔을 이기고 새로운 도약을 하자고 당부했다. 부회장 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희망을 이끌어 주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이 함께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 마음에 밝은 희망과 화합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며 올해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어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김재원 문화관광부 총무실장이 대독하였고, 국회 정각회 회원이자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종단협 부회장 진각종 총리원장 회성 정사가 부처님 전 발원문을 봉독하고 신년하례법회를 마쳤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신년하례법회가 1월 19일 오후 1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종단협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조계사=김종열 기자

# 100년 만에 돌아온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志士仁人 殺身成仁' 높은 뜻을 가진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눈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문구다. 대한제국 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동양평화를 파괴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중국의 뤼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 쓴 유묵이다.

대장부의 기상과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안중근의사승모회가 지난 12월 28일 서울 중구 소월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 의사가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유묵인 '志士仁人 殺身成仁'과 관련 유품을 공개했다. 특히 유묵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 옥중에서 쓴 글씨 진본 중 하나로 국내에 최초로 공개됐다. 안중근의사승모회 관계자는 "1910년 안 의사의 공판을 취재하러 간 고치현 도요(土陽) 신문사 통신원 고마즈 모토고(小松元吾)

가 안 의사로 부터 받은 유묵"이라며 11월 11일 이를 보관하던 그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옥중 유필 소장자인 고마즈 료(小松 亮) 선생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기증을 협의해 오던 중 그가 안 의사의 고귀한 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려 모국에 무상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보인 유묵의 존재가 알려지긴 했지만 국내로 환수돼 처음 공개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910년 2월 10일 뤼순관동독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공판의 방청권 진본과 이 공판을 그린 내용이 포함된 삽화집도 기증받아 이날 유묵과 함께 공개됐다.

# 청와대불자회 박세일 초대회장 별세

## 청담스님에게 법명을 받기도



청와대불자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서울대 명예

교수)이 1월 13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 청계산 청계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고등학생 롬비니 학생회와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 신행활동을 했다. 서울대 재학시절 문경 김룡사에서 성철스님을 친견하면서 출가 권유를 받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했다. 또한 광덕, 법정, 월주 스님 등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 정책

기획수석비서관과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청와대불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정책위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 제도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생각당 대표를 역임했다. 또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한국교육개혁포럼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도 지냈다.

# 유키구라모토 화이트데이 콘서트

## 봄날의 꿈

YUHKI KURAMOTO  
WHITEDAY CONCERT

### 2017.3.17 FRI 8PM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 유키 구라모토 | 앙상블 김지윤(Vn) | 어윤하(Vc) | 유지홍(F) | 이진애(C)

티켓 R석 5만원 | S석 4만원

예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주최 (재)마포문화재단

# 유물보보는 필

국보 제86호

명칭 :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開城 敬天寺址 十層石塔)  
시대 : 고려시대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립중앙박물관



▲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경천사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에 있던 절로 고려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터에 세워져 있었던 이 탑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무단으로 반출되었던 것을 되돌려 받아 1960년에 경복궁으로 옮겨 세워 놓았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3단으로 된 기단(基壇)은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고, 그 위로 올린 10층의 높은 탑신(塔身) 역시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이었다가, 4층에 이르러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기단과 탑신에는 화려한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부처, 보살, 꽃꽃무늬 등이 뛰어난 조각수법으로 새겨져 있다. 4층부터는 각 몸돌마다 난간을 돌리고, 지붕돌은 옆에서 보아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각지붕 형태의 기와꼴을 표현해 놓는 등 목조건축을 연상케 하는 풍부한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탑의 1층 몸돌에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새로운 양식의 석탑이 많이 출현했던 고려시대에서도 특수한 형태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전체적인 균형과 세부적인 조각수법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태로 눈길을 끌며, 지붕돌의 처마가 목조건축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양식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제2호)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일본으로 반출되면서 훼손되었던 원래의 탑 형태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복원작업을 거쳐 현재 새로 개관한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32. 구시철구수(俱尸鐵鉤手) 진언



옴 아가로 다라가라 미사에 나모 사바하  
만약 선신과 용왕이 항상 와서  
옹호해 주기를 바라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381p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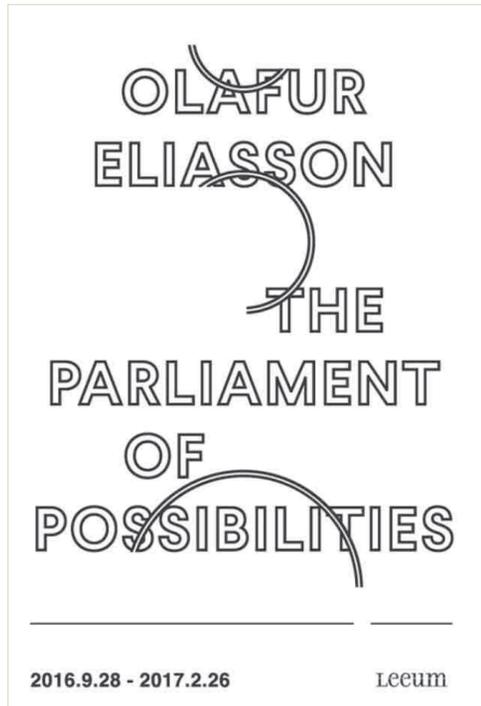




#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은?

## 올라퍼 엘리아슨이 펼치는 현재와 새로운 인식 세상의 모든 가능성展 리움미술관에서 2월 26일까지

관람시간 : 화~일요일 10:30~18:00 (입장마감 17:30)  
휴관 : 매주 월요일, 설 연휴



▲ 포스터

북극의 오로라와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곳,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고 우주의 진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 리움미술관이 지수화풍 사대가 만나 새롭게 변신하는 세상을 선보인다. “문화란 세게라 부르는 기계의 심장”이라 말하는 ‘선한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전이 열리는 것.

아이슬란드계 덴마크인인 올라퍼 엘리아슨은 시각미술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자연, 철학, 과학, 건축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 주로 움직임이나 빛, 거울을 이용한 착시효과, 기계로 만들어진 유사 자연 현상, 빛과 색채를 이용한 시각 실험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들은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하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엘리아슨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과학, 문명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매치한다. 자연의 파괴가 아닌 공존과 상생, 두두물물이 함께 공업을 이루어 나가는 연기법의 도리가, 항상 같은 것은 없다는 제행무상의 진리가 엘리아슨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리움에서 열리는 엘리아슨의 개인전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초기부터 최근까지 전 시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 아이슬란드의 이끼를 설치한 ‘이끼 벽’, 허공에 매달린 환풍기의 움직임과 관객의 호흡이 작품이 되는 ‘환풍기’ 등 초기작들을 비롯해, 1,000여 개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져 거대한 인드라망을 작품으로 구현한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 거울을 배치해 만들어진 ‘자아가 사라지는 벽’과 같은 신작들까지 총 22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만난다.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은 정체되고 닫힌 의미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며 늘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엘리아



이슨의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자연, 문명과 만나 인드라망을 펼친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 2016  
검은 바탕에 크고 작은 천여 개의 유리구슬을 배치한 이 작품은 마주하면 화염연화장세계가 구슬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드라망을 보듯, 각각의 구슬에 전혀 다른 모습이 담기고, 그 구슬들은 또 서로를 담아낸다.

작가는 이 작품을 우주라고 설명한다.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공간. 우주를 유영하듯 작품이 설치된 벽을 따라 걸으면, 실제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로 가득 찬 우주를 여행하는 기분은 맛보게 한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양한 크기의 유리구슬이 가느다란 철사 받침대에 얹혀 있다. 뒷면을 거울처럼 칠한 유리구슬은 관람객과 전시 장소를 거꾸로 비추고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담아내 흥미를 유발한다. 작품을 보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유리구슬에 맺히는 이미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작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중무전을 이미지화하면서 엘리아슨이 강조한 ‘현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준다.



자아가 사라지는 벽, 2015  
마름모꼴의 거울과 삼각형 모양이 얼기설기 변갈아 배열된 벽, 열린 부분의 안쪽에 거울에 비친 이미지들이 무한하게 증식되는 공간이 펼쳐진다. 이 작품에서 엘리아슨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부처님이 설하셨던 무아사상과 닮아 있다. 나도 내 주변의 모습도 파편이 되어 여기저기 비추는 순간, 나라고 생각했던 육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있다고 믿었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무지개 집합, 2016  
어두운 공간 속에 물안개로 만든 거대한 벽이 펼쳐지고, 그 위를 비추는 빛이 일렁이는 무지개를 만든다. 무지개 가까이 다가가 위를 올려다본 관람객은 천장에 설치된 원형 구조물에서 미세하게 분사되는 물방울과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다. 엘리아슨 작품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작품을 구성하는 기계장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점. 눈속임 기법으로 환영을 만들어 내는 대신, 현실은 언제나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일체유심조의 세상, 인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당신의 미술관 경험을 위한 준비, 2014  
어두운 공간에 매달린 프리즘 고리와 그 고리 한가운데 끼운 필터 유리가 강한 빛을 받으며 천천히 회전하는 작품이다. 필터 처리한 판유리를 통해 투과된 빛은 고리의 움직임에 따라 원도 되고 호(弧)도 된다. 때로는 단색을, 때로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으로 변신한다. 제행무상의 도리는 정형화되지 않는 빛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담긴다. 반사된 빛은 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공간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떤 공간에 설치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환풍기, 1997  
기획전시실 입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작품은 천장에 매달려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환풍기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람이라는 요소를 볼 수 있게 만든 이 작품은, 일종의 움직임이 조각, 허공을 빙글빙글 도는 환풍기의 움직임은 관람객에게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관람객의 반응은 매 순간 변화하며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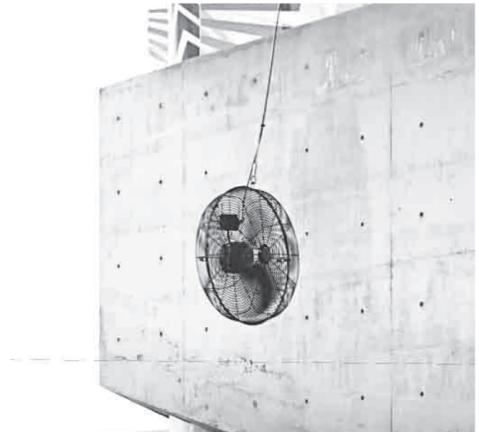
사라지는 시간의 형상, 2016  
철로 만든 이 조각 작품은 ‘올로이드’ 형태에 기반을 뒀다. 올로이드는 ‘반전 큐브’를 발명한 수학자 폴 샤츠가 1929년 만든 기하학적 형태로, 크기가 같은 원이 서로 직각을 이루도록 원의 중심을 맞물리게 하여 만든 것이다. 이 형태는 올라퍼 엘리아슨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기하학 조사 연구의 한 주제였는데, 이후 작가의 여러 작품에 사용되며 사랑을 받은 소재이다.  
작품의 뼈대 안쪽에는 반짝이는 삼각형 황동 판들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데, 작품 한가운데 전구가 있어서 판들에 반사되고 사이로 빠져나오는 빛이 화려하고 신비하다. 이 작품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행무상의 도리를 드러낸다.

무제(돌 바닥), 2004  
‘무제(돌 바닥)’는 네 가지 색의 아이슬란드 화산암을 바닥에 깔아 만든 설치 작품. 수학자 겸 건축가 아이너 톨스타인이 개발한 이 형태는 엘리아슨의 작품에 다양하게 활용됐다. 육각형과 평행사변형이 서로 맞물리며 반복되는 이 도형은 관람객이 어느 곳에 눈의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드러운 나선, 2016/ 강한 나선, 2016  
두 작품은 각각 하나의 고리로 이어진 가는 철관을 코일처럼 감아 만든 이중나선 구조다. 천장에 매달려 모터의 힘으로 끊임없이



회전하는 두 개의 이중나선 중 하나는 느슨한 물결 모양이며,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촘촘한 물결 모양이다. 엘리아슨은 두 이중나선의 바깥 면은 검은 색으로, 안쪽 면은 흰색으로 칠해, 한 개는 항상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한 개는 끝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두 작품의 원문 제목에 각각 들어간 단어 ‘care’는 세상을 품는 부드러움을, ‘power’는 다스리는 힘을 상징한다. 엘리아슨은 이 작품으로 조화와 균형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들어 아님을 드러낸다.



이끼 벽, 1994  
‘이끼 벽’은 엘리아슨의 대표적인 초기 작품. 거대한 벽을 가득 메운 이끼는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지역에서 자라는 순록 이끼이다. 순록 이끼는 건조할수록 수축하면서 색이 바래지만, 물기를 머금으면 다시 부풀어 오르면서 코를 찌르는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엘리아슨은 종종 다양한 자연 현상을 미술관과 같은 인공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데, 자연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이다.

강지연 구성작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 잠원햇살 어린이집

교육 : 배려, 자율, 창의

환경 : 안정적, 온화함

교사 : 사랑, 보람, 행복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25(잠원동, 잠원래미안아파트) 문의전화 : 02)536-8725

# 신개념, 친환경 독서실

## 어썸 독서실

### 부산 동래 플레이스

문의 051-513-1366

흔히 독서실하면, 좁아진 칸막이 안에 백열등을 켜고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학습 환경도 바뀌었다. 지금의 30-40대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운동장 흙먼지를 마시면서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와 외동 가정의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우리의 교육환경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학습 환경이 공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답답하던 독서실은 가고,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진 책상에서 공기 청정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며, 눈에 가장 편안한 조명 아래 공부하는 시대가 왔다.

총지중 부산 정각사 아래에 있는 어썸 독서실은 이런 편견을 완전히 깬 친환경 독서실이다. 독서실 김대우 원장은 정각사 단원회 회장을 역임한 김광원 각자님의 아들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김원장의 얼굴은 인자한 선생님의 인상이다. 잠깐 총지중 중립 동해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던 김대우 원장은 학생들의 가르친 경험과 대학의 전공을 살려 교육사업인 독서실을 창업했다.

김대우 원장은 어썸 독서실을 교육의 공간이라 말한다. 교육은 좋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도 한축을 이룬다고 말한다. 김원장은 “요즘 도심의 환경은 예전과는 달리 공기 오염부터 심각합니다. 어썸 독서실은 최고의

공기질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마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갖추었습니다.”며 “예전과는 달리 공무원, 자격증, 대학생, 직장인 등 그 사용 연령층이 다양해 졌습니다.”라며 단라진 독서실 이용자들을 소개한다.

특히 중, 고생들은 학부모님들의 연락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안심하고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와이파이, 물론 깔끔한 휴게실과 식사공간 등 다양한 편의 시설로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프리미엄 학습공간인 싱글 스터디룸과 경쟁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오픈 스터디 플레이스를 갖추고 지정식, 자유석을 운영하고 있다.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 학습기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시스템도 갖추었다. 카페같은 휴게공간인 스투닉(스터디+커피)에서는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토론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런닝실도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이제 총지중 교도 자녀들의 학습 환경은 교도가정이 운영하는 어썸 독서실 부산 동래 플레이스로 가자. 교육학을 전공한 원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믿을수 있는 학습 공간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출신인 김 대 우 원장(정각사 김광원 각자님 자제)



▲ 입 퇴실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니터



▲ 카페 같은 휴게 공간



▶ 최신 공기 정화 시설 ▶

## 정성과 신뢰로 만드는 전통 떡 방앗간 “대동 떡방”



대표 임옥분(정각사 교도)  
주문전화: 051-524-3460 / 010-7185-3460

## 유아교육의 첫걸음은 아성유치원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과 전문화된 시설  
엄마와 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원장 박 정 선(박정희) 정각사 교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 11 ☎ 051-553-0809